- 2013년도 제1회 미래문화포럼 -"여가소비의 세대별 다층화와 문화복지 화두의 부상"

뉴 실버세대를 위한 생활속 문화복지 실천전략

본 강의자료는

기분좋은 QX 안이영노 대표의 저술과 실버산업 전문가 조한종 대표의 해외 실버문화공간 탐방 관련자료, 기타 실버관련 기사 및 통계자료들에서 관련 내용들을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논문이 아니라 일일이 <mark>출처</mark>를 밝히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인용된 자료들은 본 강의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음을 밝힙니다.

사전에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인용된 자료들이 있다면 널리 양해바랍니다.

2013, 4, 19

윤성진

㈜ 주스컴퍼니 예술감독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용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확대합니다.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 ✓ 어르신 문화학교 310개 수준으로 확대
 - 문화나눔봉사단 활동 및 사회적 기업화 지원
- ✓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제도를 문화여가카드 발급으로 통일
- ✓ 문화.체육.관광 시설에 무장애환경(Barrier free) 확충
- ✓ 실버스포츠 개발 보급
- ✓ 노인복지관에 생활체육지도사 추가 배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학로 국민생태 가꾸기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 · 어린이집 · 유치원, 예술강사 파견
- '이야기할머니' 파견
- '북스타트' 운동

아동・청소년



- · 초· 중· 고교, 예술·스포츠강사파견
- '토요문화학교', 학습여행
- '예술꽃 씨앗' 학교

청·장년



- · 직장 문화 · 스포츠 동호회 지원
-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 한국형 체크바캉스

어르신



- · 실버스포츠개발 · 보급
- · 문화예술 프로그램
- 어르신문화학교
- · 문화나눔 봉사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모작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 1. 20대 중반 ~ 40대 중반 : 왕성한 사회활동기(20년)
- 2. 40대 중반 ~ 60대 중반 : 제 1의 전환기(20년)
- 3. 65세 ~ 100세 : 제 2의 전환기(20~30년)

현대인은 이미 2모작 시대를 넘어서, 3모작 시대에 들어섬. 인생에 2번의 큰 전환기를 갖게 되면서 2모작, 3모작 시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음 전환기를 준비하는 지혜가 요구됨. 정부 정책수립에서도 3모작 시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황

3모작 시대를 고민하게 된 배경은? ┌



2000년 고령화사회(7%이상) 2018년 고령사회(14%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이상)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황

실버세대와 뉴실버세대의 차이		
실벡세대		뉴실버세대
완고함. 보수적	이미지	밝고 유연함. 합리적, 긍정적
검소하고 소박, 한정된 취미 생활	삶의 태도	여유와 즐거움, 다양한 취미 생활
자녀에게 의존	독립성	자녀와 동거 거부
무계획. 자녀 용돈 등에 의존	노후설계	계획된 노후설계로 독립 추구
세대 간 단절, 변화에 대한 거부	가치관	변화에 개방적, 다른 세대와 소통
일에 재미. 여가는 수단	레저관	여가 자체가 목적
상속해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	자산 처분	자신을 위해 쓰다 남으면 상속 또는 사회 환원
경로당에서 노인끼리 교류	대인관계	동호회 활동 등 폭 넓은 대인관계
자녀 중심	생활	부부 중심, 참살이
-		자료: 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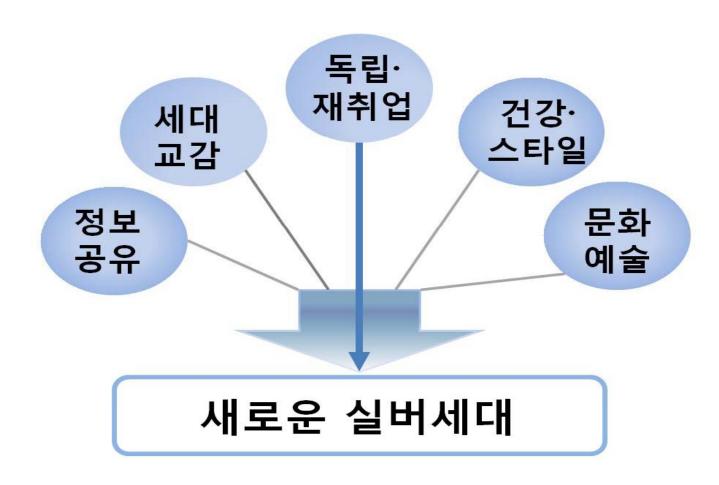
현재 70세~

1945년 이후 출생 세대 (현재 60~69세)

뉴 실버세대 (nS세대)

새로운 실버세대'의 세대적 특징

- 1945년 이후 출생
- 90년대 후반 40대중반~50대의 나이에 IMF로 인한 명예퇴직·조기은퇴
- 현재 60대



- 1) 정보를 나누는 초현대인
 - · 디지털 실버족
 - ·사이버커뮤니티 활동

- 2) 세대교감을 추구하는 활동가
 - · 1-3세대간의 교감
 - ex.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동화구연반'
 - · 동세대간의 교감
 - ex. 60대 노래패 '철부지'

- 3) 젊음을 관리하는 마니아
 - · 외모와 젊음에 대한 관심
 - · 교양과 정신적 안녕 추구
 - 볼런테인먼트·프로보노

- 4) 독립을 선언한 어르신
 - ·여생설계
 - 결혼관의 변화
 - 황혼이혼
 - ·재테크
 - ㆍ재취업

- 5) 문화의 향기를 누리는 예술가
 - · 교육과 동아리
 -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 · 취미에서 예술까지
 - · 앙코르, 무대 위의 황혼

베이비 부머 세대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 · 1955-1963년생(1차 베이비부머 약 700만 명)
- · 해방둥이, 한국동란 출생세대, 4·19세대
- · 1970년대에 20대 청년기
- · 한국 근대화의 선두주자, 산업역군
- ·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집단
- · 1980년대 이후 대중소비의 확산 주도
- · 50대에 '평생직장 해체, 이직, 실업'의 위기
- · 2000년대 들어 은퇴연령에 진입
- · 뉴 실버세대의 특징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냄.
- · 앞선 세대에 비해 우월적인 경제적인 안정

베이비 부머 세대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분포



199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낸 2차 베이비부 머 세대는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의 주체로 부 각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건축학개론 세대' 로 이름을 알린 이들의 10~20대에는 서태지· 전람회·심은하 등이 있 었다.

신세대·X세대 같은 별명을 가졌고 PC통신을 대중화하며 문화세대로서 조명받았다.



서울 지역 베이비부머 중 36.5%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 26%는 전문사무직에 종사

77%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함.

1970~ 1980년대 유입된 팝과 대학가요제의 핵심 소비층

2010년 일었던 '쎄시봉' 열풍의 주요 근원

베이비 부머 세대 젊은 비즈니스

5가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뉴 트렌드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전략 건강, 가족, 여가, 사회참여, 디지털 라이프

첫째 프로액티브 케어 비즈니스(Proactive care Business)

둘째 원거리 효(孝) 비즈니스

셋째 목적지향 휴(休) 비즈니스

넷째 베풂지원비즈니스

다섯째 스마트 실버 비즈니스

베이비 부머 세대와 문화시장

새로운 문화소비층으로 등장한 베이비부머 세대

- 4050세대 중장년층을 겨냥한 문화마케팅 활발
- CGV 45세 이상 고객을 위한 노블레스 전용 프로그램을 진행 (전체 관객 중 45세 이상이 2011년 14.8%에서 2012년 17%로 증가)
- 4050세대 겨냥 마케팅은 출판계, 공연계, 미술계 등 문화전반의 현상
- 교보문고의 연령대별 판매권수 추이 30대이하 2010년 68.7%에서, 63.8%로 하락, 40대 이상은 31.3%에서 36.2%로 증가.
- 4050세대를 위한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2011), <그와 그녀의 목요일> 등 성공.
- <레미제라블>등 10만원이 넘는 뮤지컬에도 4050 주부 관객 몰려
- '나우(NOW)족과 노무(NOMU)족의 부상'
 - = 'New Old Women'과 'No More Uncle(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다)'
 - 자기주도적 여가문화를 즐기는 4050세대의 부상
- <7번방의 선물> 예매율도 40대이상이 41%로 30대(40%)를 앞지름

실버세대에 대한 이해

실버세대의 공통점

- ㆍ제 2의 구직
- ㆍ경제활동을 유지, 갈망
- ·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
- ·재테크
- ㆍ자기 표현의 다양화
- ·취미여가활동
- · 자존감 획득
- ㆍ기술 습득

새로운 문화부족의 출현

실버문화족(silver cultizen)

생활 속에서 문화를 배우고 이를 취미로 즐기는 실버세대 새로운 문화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참여', '창작'을 체험하며 변화하는 실버세대

ex. 2006년 <실버문화사랑축제> 윤성진 감독 'Silver Cultizen' 언급

새로운 실버부족의 출현

실버유스(Silver Youth)

실버유스(Silver Youth)란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서 성장하거나 친교를 통해 자신의 취미를 개발하고, 놀이와 문화를 매개체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신종 청소년이다.

- · 새로운 청년집단으로서 활동 기회 확보 필요
- · 고용 창출·창업지원·수익활동
- · 교육기회보다 경력활동 등 사회봉사기회(새로운 출구 전략) 필요

실버문화족(Silver Cultizen)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노인 특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2010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총 21개 프로그램

연극, 뮤지컬, 영화 등 프로그램에 따라 11월까지 약 6개월 간 서울 전역의 문화예술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무료로 진행

실버문화족(Silver Cultizen)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60대 어르신들이 만드는 연극 이야 "젊은 시절 배우의 꿈이 이뤄졌어"

늦깎이 청춘대학 입학생들, 삶의 활력소로 지역사회에 환원

실버문화족(Silver Cultiz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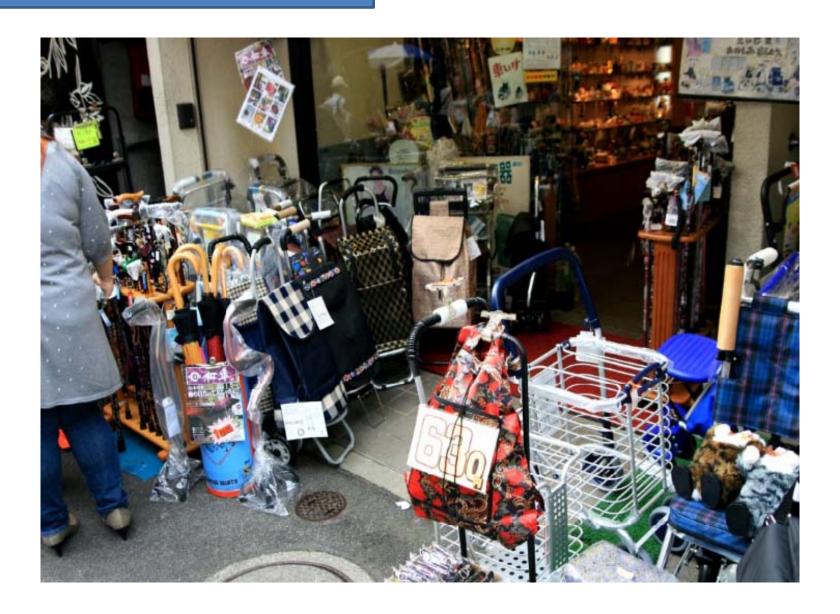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맹땡땡! 실버문화학교>는 2005년부터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예술사업으로 추진

3년에 걸쳐 전국의 230여 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버세대를 **문화예술 활동가**로 기르는 체험활동 형태의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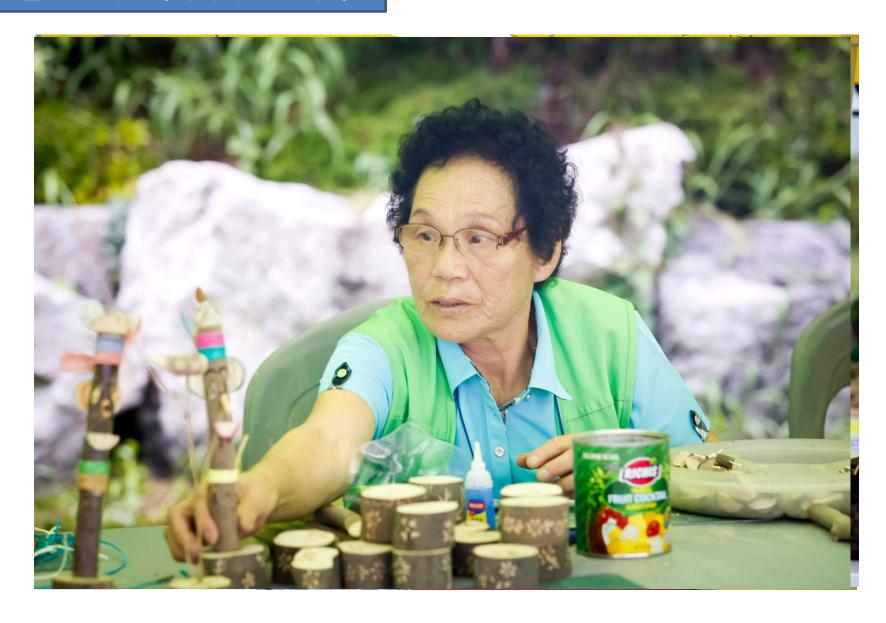
노인들의 천국 '스가모 재래시장'

- 800여미터 200여 점포 위치
- 노인들의 하라주쿠 / 실버 테마파크/ 노인들의 천국
- 연 평균 900만명의 실버세대 방문
- 1일 20~30대의 관광버스가 일본전역에서 방문
- 방문목적 쇼핑 5% / 구경 81%
- 구청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거부하고 낡은 건물을 유지
- '오지상(할아버지)', '오바상(할머니)'라는 명칭을 쓰지 않음.
- 매달 4일, 14일 24일 노점상 축제 개최
- 노인용품이 아닌 일반용품 판매 시장
- 동경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의 접근성
- 시장내에 '지역문화창조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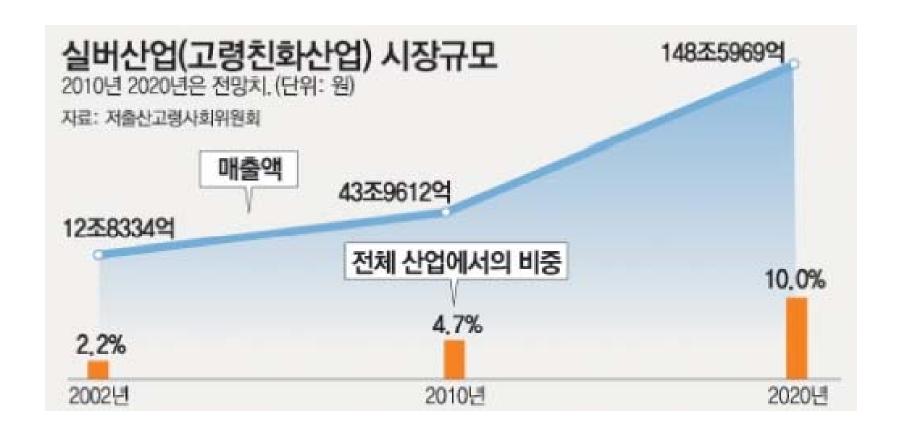




스가모를 능가하는 휴양형 시니어마켓을 꿈꾸는 온양온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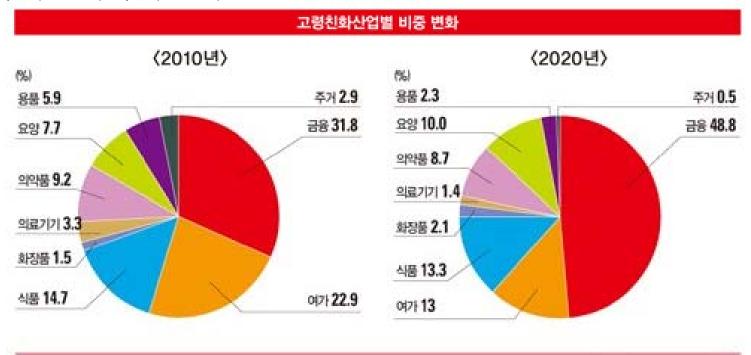
- 500여 점포, 200여 노점상이 자리잡은 아산시 유일 전통시장
- 1일 온천방문 실버세대 2천명~3천명
- 세계적인 휴양형 시니어마켓을 목표로 3년간 문화관광형시장
- 시장구역내 10여개 온천탕, 온양관광호텔(온양행궁) 바로 앞
- 온궁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버 상인 DJ활동
- 풍물단, 마술, 밴드 등 시장 상인동아리에 실버 상인들의 참여
- 시니어 특화상품 박람회 (건강백세 행복장터) 4회 연속 개최
- 리마인드 허니문 관광프로그램 개발 추억의 신혼여행객 유치
- '아빠의 청춘' 등 악극, 연극에 실버상인 출연 장기공연
- 4계절 온천수가 넘치는 온천족욕분수를 놀이공간으로

실버산업 시장의 변화 추이



실버세대 산업의 변화

실버산업의 주축인 9대(요양·의약품·식품·화장품·의료기기·용품·금융·주거·여가) 산업별로 보면 2010년 현재 금융(31.8%)·여가(22. 9%)·식품(14.7%)·의약품(9.2%)순,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면 금융(19.2%)·화장품(17.7%)·요양(17. 2%)·의약품(13.5%)·식품(13.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실버산업 중 금융 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8%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식품(13.3%)·여가(13.0%)·요양(10.0%) 등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사회 생활속 문화복지 전략

- 실버세대의 세대간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수립
- 생활속 작은 문화공간의 확대 (실버세대의 접근성을 고려)
- 취미에서 자존으로, 자아실현에서 문화나눔으로의 성장을 지속 지원
- 실버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의 확대
- 새로운 거대 문화소비층 = 실버대상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
- 수공예 창작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예비 실버를 위한 인생 3모작 준비 학교의 개설
- 문화공간을 고령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유니버설 디자인
- 어린이, 다문화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사 참여 기회 확대
- 문화부문에서 실버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을 찾는다.

생활속 • 나눔을 통한 소통 • 실버문화콘텐츠 • 3모작준비 • 실버일자리

노인에 대한 경의



저 금

나 말야,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놓고 있어 외로워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 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약해지지 마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 •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노년의 삶에 대한 존중



98세에 시집을 내며 시인으로 등단한 일본의 100세 시인 '시바타토요' 2012년 101세로 타계.

시집 <약해지지 마>는 150만부 판매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 2011년 <백세> 라는 시집을 발간 노인들의 문학활동에 불을 지핌

윤성진 tozio210@hanmail.net

문화기획자 / 실버문화전문가

2006~2009 실버문화학교 컨설턴트 2006~2008 실버문화축제 총감독 2010~2012 시니어휴양마켓 '온양온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사업단장